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찬미」를 통한 선교적 의미 분석

김수진 명지대 스포츠예술 지도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17년 ‘문화예술 전문선교에 도전하라’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선교계에 서 전문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영역 역시 전문인 선교사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문화예술 영역은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 는 한류 열풍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단기 선교팀 등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류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은 축소되고 실제 선교의 현장에서 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크리스천 투데이,2019).

현대사회는 어떤 문화가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전쟁 속에 있다. 이러한 문화전쟁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 해야 하는 기독교의 선교 방안 모색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특별히 기독교무용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어 큰 거부감 없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히 모두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독교무용은 그 목적의 근간을 잃고 예배의 목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과 훈련이 미흡한 기독교무용수, 지나치게 화려한 헤어나 메이크업, 의상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 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최수진,2016).

진정한 기독교무용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생 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박순자,2004).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의 수단인 기독교무용 그 자체로 작품의 완성도 와 작품성, 만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타당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면서 꼭 전해야 하는 복 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의 과정을 믿음 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을 제작함에 있어 무용을 만드는 작업이 안무자의 역할이라면, 부수적

으로 흐름을 이어주거나 작품을 디자인 해주는 것이 연출자의 역할이기에 무용 공연에 있어서 안무자는 곧 연출자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서강석, 2000). 그러나 기독교무용의 경우 안무자가 곧 연출자이자 무용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표현할 때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 줄 수 있다는 특성이며 장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3년간 기독교무용 선교의 현장에서 개인의 신앙 뿐 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복음 증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 찬미」안무자인 박순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의 선교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순자 교수의 안무관을 통해서 기독교무용을 창작하는 기독교무용 안무자들이 가져야 할 예술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추후 기독교무용 작품이 다각도로 창작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을 점검하고, 비기독교인에게는 부담없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기독교무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선교적 관점에서의 무용

전도와 선교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할 때면, 보편적으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였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국내선교, 해외선교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언어나 문화가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신영은(2001) 선교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부분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즉, 선교란 예수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웃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인 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다각적인 선교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21세기 선교의 주된 방향은 문화선교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용이 선교의 매체로 쓰임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구진영, 2014). 일반적으로 무용예술은 시각적, 미학적 예술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여 온 것에 반해(김수진, 2015) 기독교무용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사용 영역이 넓어졌으며 성도 및 일반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다(박순자,2004). 무용은 무용을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며 전달의 매개체가 인간의 신체에서 발현되는 움직임이기에 인간 본연의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용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예술인 것이다(김수진,2015).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무용의 선교적 사명인 것이다(박순자,2004).

2009년 신학생과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무용의 인식 변화 설문 중 기독교무용을 기대하는 신학생은 더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기독교무용 작품을 원하였고, 일반성도는 간증적인 내용을 담은 감동적인 작품 뿐 만 아니라 테크닉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로서의 기독교무용을 원한다고 하였다(이정인,2009). 즉 기독교무용이 신앙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고 신앙의 체험을 스토리화 하여 테크닉과 예술성까지 돋보이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가 이루어진 수준 높은 무용 예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는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써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무용은 나만을 위한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하며 작품과 맞지 않는 과도한 헤어나 메이크업, 의상 등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작품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술에는 영적 차원이 있고, 예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능력이 있으며 성경이 이를 승인해 주고 있다는 주장과 같이(진 에드워드 비이스,1994)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무용이 산 제사가 되고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기독교무용가가 될 것이다.

2. 기독교무용 작품「나의 찬미」작품 분석

1) 안무자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 찬미」를 안무한 안무가는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의 명예교수이자 Argon Dance Association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순자 교수이다. 박순자 교수는 아르곤 댄스 컴퍼니의 전신인 박순자무용단을 1989년 창단하였으며 무용 및 예술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이 모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5월 23일 한국선교무용예술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하여 선교의 활동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충무아트센터의 중극장에서 1달간의 기획공연을 맡게 되면서 비영리단체인 Argon Dance Company로 단체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강은혜,2014).

아르곤 댄스 컴퍼니는 현재까지 총 23회의 정기공연과 기독교무용 축제인 아르곤 댄

스 페스티벌을 7회 개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 및 오페라의 안무 및 협연을 통한 공연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사역으로 교회사역 및 노숙자 사역, 병원사역, 구치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 매년 해외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박순자 교수의 작품성향에 대하여 임혜영(2016)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며 공의로운 몸짓으로 표출하고 역사성, 사회성, 종교성, 대중성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관객의 입장에서 작품이 무엇인지에 관해 잘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임혜영,2016). 박순자 교수의 작품활동은 회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회심 이후에는 신앙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앙 뿐 만 아니라 사회 현상 및 애국과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함으로써 무용의 사회적 역할까지 작품을 통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임혜영은 박순자 교수의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공연된 작품의 주제를 확인하여 반영한 분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박순자교수 주제별 공연분류

주제	공연명
사회현상	거기 하늘나라 입니까? 숨쉬는 마네킹Ⅰ, 행복을 찾는 여자, 군내나는 피자 신내나는 쿠키, 웨딩세레머니, 이때를 위함이 아닐런지요, 숨쉬는 마네킹Ⅱ, 황무지의 필...꽃, 눈물, 생명...만남
구원	출애굽, 춤으로 받으소서, 거룩한 땅으로, 그리스도, 사랑, 부르는 소리, 살고 지고... 살고 살으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애국·민족	탄원·회복·영광, 아리랑, 선물, 70년 희년의 춤
소품전	감사의 산제사, 춤으로 받으소서, 성령의 춤, 마리아들의 노래

출처 : 임혜영(2016)

상기의 표 2와 같이 임혜영(2016)은 박순자 교수의 작품을 크게 사회현상, 구원, 애국·민족, 소품전으로 분류하였으며 전 공연이 신앙과 성경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밝혔다(임혜영,2016). 애국·민족을 주제로 발표된 작품의 수는 모두 4편으로 전체 공연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애국·민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은 「나의 찬미」와 「오, 대한민국」이 있다. 특별히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쓰임받아 온「나의 찬미」의 주제는 국가이며, 특별히 해외선교에서 많은 요청을 받았다.

2) 안무자의 국가관

박순자 교수는 종종 강의 시간 혹은 무용단의 연습 시간들을 통해서 타인들과는 다른 국가관, 애국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아버님께서 소천할 당시 모든 자녀에게 태극기를 유산으로 남겨 주실만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과 자긍심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으며 인천교대에 재직할 당시, 매일 아침 나오는 애국가를 항상 정성을 다해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모여 형

성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여 국가가 형성되고 국력을 기르게 되었을 때 발휘되는 그 영향력 또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있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자리잡고 있어 이러한 환경만을 놓고서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긴 역사상 단 한번도 먼저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찬미」는 이러한 안무자의 국가관이 반영되어 있다. 태극기와 붉은 천을 소품으로 선택하여 상징적이면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의 소재로 삼았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화하여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간구의 표현을 담고 있다. 안무 배경에 대해 박순자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애국가 후렴구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우하사”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버님의 유산이었던 태극기도 남다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어 「나의 찬미」를 안무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나의 찬미」에 나오는 동작은 동작을 위한 동작이 아닌 안무자의 기도이자 간구이며 탄원이라고 하였다.

2) 안무자의 태도

박순자 교수는 작품 이외에도 작품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예배드리는 기독교무용인들의 태도에 대해 강조하면서 기독교무용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용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자체로서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용에 자신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가감없이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예배하는 “춤추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위함이라”고 하였던 빌립보서 3장 8-9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고, 분별 되어지는 춤추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야함을 표현하였다.

3.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 찬미」 동작어휘 창작의도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박순자교수의 작품인 「나의 찬미」는 2009년 작품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립무용단이 주관하는 신년맞이 특별기획공연 봄으로 가는 길 - 동행(同行)에서 초연되었다. 당시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천 출신의 무용가를 초청하여 매년 공연을 했었는데 순수무용예술로 구성되었던 공연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무용이 공개되었던 것이며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국·내외 선교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다.

박순자교수는 「나의 찬미」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가사의 의미와 유사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된 의미에서 각 개인이 결합된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복음화에 대한 내용을 춤의 주제로 담고 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중주부터는 이 땅을 주의 보혈로 씻기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간구와 결단, 우리가 속한 국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이 나라가 구원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탄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박순자 교수는 작품을 창작 할 때 동작어휘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작품의 의도와 작품의 가사가 나타내는 표면적인 내용과 의미를 음악의 진행과 어우러지게 조화시켜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동작어휘 창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찬미」작품에 나타나는 동작과 안무의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나의 찬미」 전체 동작 및 안무의도

순서	가사	박자	동작 및 동선	안무의도
1	-		태극기 무대 중앙 후미 위치	태극기는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국가를 상징한다
2	전주 1	8	-	공연자의 회개와 회중과 국가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우리가 밟는 땅을 위한 회개함으로 나아간다
3	전주 2	8	무대 상수, 붉은 천을 받들어 한걸음씩 나아오다 잔걸음으로 태극기 앞에 선다	
4	전주 3	12	붉은천을 머리위로 휘둘러 내렸다가 다시 위로 연결한다	붉은천은 보혈을 의미하며 공연자의 죄를 씻고 성령충만함을 의미한다
5	전주 4	12	태극기 원편(상수)으로 붉은천을 내려놓고 마지막 박자에 정면을 향해 선다	
6	어찌하여야	8	양손은 가슴 앞에서 손바닥으로 뒤집어 내리면서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말로 형언할 수 없음에 대한 동작을 무용으로 표현하면서 음울을 고려하여 안무하였다
7	그 크신 은혜 갚으리	8	하수 사선 앞을 향해서 오른손은 하나님을 향해 사선으로 높이 들고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서 전진 후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을 아래에서 올려 가슴에 얹는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나아가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는 것을 표현하였다.

8	무슨 말로써	8	상수방향으로 밀 듯이 스텝하여 왼손을 입술에서 왼쪽방향으로 그리면서 2회 이동한다.	말로서는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도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공연자의 고백을 표현하였다
9	그 사랑 감사하리오	8	상수 방향을 향해서 왼손은 하나님을 향해 사선으로 높게 들고 오른손은 어깨높이까지 들어서 전진 후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가슴에 엮는다	언제 어디서나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고 그 사랑을 겸손함으로 받는 것을 표현하였다.
10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8	하수방향으로 중심을 밀었다가 당기듯이 투스텝 사이드로 스텝을 이동하여 진행하되 양손으로 하늘을 그리듯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하여 밀었다 당긴다	표현할 수 없이 높은 곳이지만 팔을 높이 들어 하늘을 지칭하였다
11	나의 마음	4	무대 중앙 앞을 향해서 가면서 양손을 교차하여 가슴에 손을 엮는다	마음이 있는 곳 가슴을 향해 손을 엮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2	모르리라	4	그대로 왼쪽으로 돌아서 양손 내리면서 태극기 앞으로 이동하여 선다	모르고 싶고 외면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13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8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2박자에 한 스텝씩 걸어 상수 사선 방향을 향해 오른손은 사선 위로 왼손은 어깨위로 천천히 올린다	외면했던 모습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소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4	주님의 은혜라	8	양손 내리면서 하수쪽 사선방향으로 잔걸음으로 이동하여 왼손을 먼저 올리고 이어서 오른손을 올려 머리를 거쳐 아래로 내린다.	새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5	하나님께 영광	8	양손을 감았다가 던지면서 오른손은 어깨,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가 감았다가 어깨높이로 내리면서 상수방향을 향해 던지면서 진행하되 영광에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바꾼다.	돌기의 표현은 너무 감격적임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고 왼쪽 팔의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으로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양손을 올릴 때는 아주 크고 무한하신 분께 드리는 영광을 표현하였다
16	하나님께 영광	8	위의 움직임과 대칭으로 동일하게 반대로 움직인다.	
17	하나님께 영광	8	방향을 상수쪽으로 전화하되 양손을 바깥쪽으로 손바닥이 향하게 올리면서 턴을 한다	
18	날 사랑 하신 주	8	하수 사선 뒤쪽으로 잔걸음 하면서 오른손 왼손을 순차적으로 가슴에 엮었다가 상수 사선 방향을 향해서 잔걸음으로 전진하되 왼손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었다가 내리면서 전진 후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든다.	주님께 나아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뒷걸음치며 물리나는 형용사적 표현을 하였다

19	그 피로 날 구하사	8	왼손을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가슴에 얹고, 왼손을 아래에서 휘둘러 감으면서 한바퀴 돈다(하수방향으로 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국민(회중,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이생의 자량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표현하였다
20	죄에서 건지셨네	8	하수방향으로 양손을 아래에서부터 크게 한번 돌리고 두 번 째 크게 돌리면서 연결하여 잔걸음 이동후 몸 방향을 상수쪽으로 변경하여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힘껏 올린다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였다
21	하나님께 영광	8	몸 방향을 하수 사선 앞으로 바꾸고 엽하여 뒤로 잔걸음을 걸으면서 양손을 아래에서 위로 2번 돈다	죄에서 건짐받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22	날 사랑 하신 주	8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중심을 주고 양손을 위로 올려 바깥쪽으로 내리면서 한 바퀴 돌고 앞으로 나가면서 다시하면 오른발을 내밀어 중심을 앞으로 주고 양손을 바깥으로 조금씩 연다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그대로 유지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서고 나아가고자 함을 표현하였다
23	중주 1	8	하늘을 향해 보고 있던 시선을 유지한 채로 양손을 바깥쪽으로 내리면서 붉은천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붉은천)로 회중에게 기도로 축사하고 죄사함과 정결케 함을 표현하였다 개인, 성전, 나라와 민족, 열방 등 기도의 영역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24	중주 2	8	붉은천을 잡고 원을 그리듯이 무대 앞쪽으로 나왔다가 반원을 다시 그려서 태극기 앞쪽으로 와서 선다	
25	중주 3	8	전진하여 무대 앞으로 나간다	
26	바치리라	4	붉은천을 무대 앞쪽으로 내리면서 잔걸음으로 뒤로 간다	비록 작은 붉은천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보혈이 이 땅을 덮어주시기 원한다는 기도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27	모두	4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양손을 어깨높이로 벌려서 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28	나의 일생을	4	양손을 교차로 돌려서 앞으로 전진하여 오른손을 위로 향하게 한 후 방향을 180 전환하여 다시 교차하여 돌린 후 오른손을 들었다가	이전에 나, 죄악 속에 거하던 나를 꺼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29	주님께	4	180° 돌면서 방향을 전환하여 무대정면을 보면서 양손은 기도손으로 모은다	죄악 가득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어드림을 표현하였다
30	세상영광 명예도	6	몸을 상수 뒤쪽 사선방향으로 틀면서 감았다가 하수 앞쪽을 향해 사선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왼손 바닥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가 2번 반복한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숨겨두었던 모든 것,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표현하였다
31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10	양손을 감았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손은 어깨높이 왼손은 머리위로 휘둘러 감으면서 2바퀴 돌고 연결하여 양손을 머리위로 휘둘러 감았다가 풀면서 마지막에 옆으로 서서 양손을 펴서 십자가의 형태를 만든다	내 안에 오든 죄악을 털어내어 갈보리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표현하였다
32	하나님께 영광	8	몸방향을 상수로 완전히 틀어서 양손을 위로 들면서 간결음으로 전진 후 내리면서 후진한다	돌기의 표현은 너무 감격적임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고 왼쪽 팔의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으로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33	하나님께 영광	8	전진과 후진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더 반복한다	양손을 올릴 때는 아주 크고 무한하신 분께 드리는 영광을 표현하였다
34	하나님께 영광	8	무대 중앙에서 양손을 바깥쪽으로 들면서 돌다가 영광에 업하여 돌기를 연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확장된 동작의 반복표현을 사용하였다
35	날 사랑 하신 주	8	정면을 향해 보면서 양손을 가슴에 모은 후 붉은천을 향해 간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서고 나아가고자 함을 표현하였다
36	그 피로	4	오른손으로 붉은천을 잡아서 사선으로 올려 친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현하였다
37	날 구하사	4	붉은천과 왼손을 가슴으로 모으면서 숙인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다함을 얻은 자를 표현하였다
38	죄에서 건지셨네	8	붉은천을 아래에서 휘둘러 치다가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서면서 중심을 뒤로 옮기고 수건을 하늘을 향해 사선으로 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건짐받은 것을 표현하였다
39	하나님께 영광	8	손을 감았다가 바깥쪽으로 올려서 돈다 영광에서 굴신했다가 다시 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표현하였다

40	날 사랑 하신	4	양손을 가슴으로 모았다가 왼손을 위로 붉은천을 어깨올린 사선동작에서 180° 방향을 전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41	주	4	태극기 앞으로 간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의 결단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42	후주 1	8	붉은천을 오른손에 잡은 상태에서 태극기를 잡아서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 왼손을 어깨높이로 펴서 일어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역지사지의 길을 걸어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같이 영광 돌리기 위한 염원을 표현하였다
43	후주 2	8	270원을 크게 그리면서 하수 앞쪽으로 원을 그린다	
44	후주 3	8	반대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45	후주 4	24	정면을 보고 선 상태에서 양손을 내렸다다 다시 올리면서 붉은천과 태극기끝을 잡은 오른손은 가슴의 중앙, 왼손은 펴서 천천히 앞으로 4걸음 걸은 후 잔건음으로 앞으로 전진한다	
46	엔딩	4	무대 중앙에서 앞에서 붉은천과 태극기가 보이도록 하면서 앉는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상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찬미」에서는 뛰기, 건너뛰기, 점프 등의 활동적인 동작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잔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간구하여 아뢰며 더 나아가 간구함이 깊어져 탄원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4. 안무의도

「나의 찬미」는 작품이 가지는 내면적 요소로서의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 좁게는 한국이라는 국가와 넓게는 선교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덮기를 원한다는 안무가의 선교적 의도가 동작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지만 안무자의 동작에서 보여주기 위한 과한 테크닉을 표현한 다거나 과도한 동작을 연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나의 찬미」는 많은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가사에 맞는 동작어휘를 창출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무 된 동작은 모두 27동작으로 5분 6초의 시간동안 동작의 수는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무용은 많은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5분이라는 시간동안 표현되는 작품의 동작은 몇 가지의 주된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특별한 안무 의도가 아니라면 무수히 많은 동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사

와 관련없는 동작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의 폭에 따라서 안무를 하기도하며, 그것과 상관없이 동작을 위한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찬미」에서는 동작의 모든 요인을 배제하고 동작과 소품의 사용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안무를 구성하였다.

「나의 찬미」동작의 분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나의 찬미 동작분류

동작	횟수	동작	횟수
걷기	3회	양손 원으로 돌리기	2회
수건 휘둘리기	1회	한발 앞 몸앞으로 원그리기	2회
수건 올렸다가 내리기	1회	양손을 순서대로 가슴에 얹기	1회
양손 내리기	1회	수건 날리기	3회
사선으로 잔걸음	5회	양손 어깨 높이로 펴기	2회
한손 들었다가 가슴 손	3회	한손씩 돌려서 한손 위	1회
입술에 손	2회	기도손	1회
양손들기	2회	양손을 아래로 했다가 사선 위	2회
양손 가슴에 얹기	3회	수건 치고, 잡기	1회
양손 머리위에 내리기	1회	양손 들면서 잔걸음	1회
돌기	5회	한손 들기	1회
한 손 휘둘러 감기	5회	수건 끌어 안기	1회

박순자교수는「나의 찬미」에서 나오는 모든 동작이 기도라고 하였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테크닉의 나열이 아닌 마음의 고백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달하고자 하여 가사와 연결되지 않는 동작은 모두 배제하였다고 하였다.

가장 처음 나오는 가사인 “어찌하여야”라는 이 단어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몸의 표현을 통해 충분한 감정과 영적인 표현을 나타내었다.

세상의 높음이지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선의 동선을 사용하여 손을 들어 가장 높고 가장 낮음을 대조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양손을 들어 턴(turn)을 하면서 높낮이를 주어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무한한 영광을 표현하였다.

양손을 같이 혹은 순차적으로 가슴에 얹을 때는 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휘둘러 감는 동작에서는 더욱 격앙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음악과 동떨어진 동

작의 표현이 아닌 지속적인 몸짓의 기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기독교무용 작품이 가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작이 가사에 종속되거나 가사와 동떨어진 동작의 나열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찬미」는 가사가 주는 직접적인 의미와 더불어 음악 전반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안무가가 형상화 시킴으로서 작품의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5. 소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나의 찬미」에서는 두 가지의 천을 소품으로 사용하는데, 소품 I은 태극기이고 소품 II는 붉은 천이다. 태극기는 부드러운 인견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표현하면서 움직임에 따라바람에 날리 수 있는 천을 사용하였으며, 붉은 천은 노방천을 사용하여 흘러내리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품은 선교의 현장에서 회중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에서의 사역에서는 태극기로 사용하는 반면, 해외 선교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기를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촉구하고 있다.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색 천으로 국기를 뒤덮는 동작과 날리는 동작을 표현함으로 춤을 추는 자에게는 나라를 위한 간구와 탄원을, 회중들에게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6. 음악

「나의 찬미」는 미국의 가스펠 가수이자 CCM작곡가인 안드레 크라우치(Andre Crouch)가 작곡한 곡으로 원어 제목은 My Tribute라는 제목에 To God be the glory 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소제목으로 발표되었다(wikipedia.org). My Tribute(To God Be the Glory)는 1972년 안드레 크라우치의 「Keep on Singin」에 처음으로 녹음되었다.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 찬미」는 여성 CCM 보컬리스트인 박진희가 2004년 발표한 <박진희 1> “마리아의 기도” 앨범에 수록된 「나의 찬미」음악을 사용하였으며 음악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나의 찬미 음악 구성

박자	4/4박자
템포	♩=75 or ♩=80
구성	전주 - 1절 - 중주 - 브릿지 - 후렴 - 후주
시간	5분 09초

나의 찬미의 가사는 영어가사를 번안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사 피흘리심으로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와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무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 「나의 찬미」가 안무 된 것은 박진희님의 번안곡 이전에 원곡으로 기독교회관에서 초연된 적이 있으나 박진희님의 「나의 찬미」곡을 듣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구국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재안무하여 현재까지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09년 창작된「나의 찬미」 안무자인 박순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독교무용 선교의 현장에서 개인의 신앙 스토리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기독교무용의 선교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안무자 박순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품의 선교적 의미와 안무가의 안무관을 통해서 기독교무용 안무가들이 가져야 할 예술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로써 추후 기독교무용 작품이 다양하고 다각도로 창작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신앙에서 확장된 주제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한 국가관을 표현하였다. 「2009년 초연된 이후 13년간 선교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받고 있는 작품인 「나의 찬미」는 가사가 포함하고 있는 일차적인 내용인 보혈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개인의 믿음에서 더욱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확장된 선교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믿음 안에서의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둘째, 상징적이면서 직접적인 소재인 태극기와 보혈천을 소품으로 표현하였다. 기독교무용 작품이 표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전달이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작품의 주제가 명확한지,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소품의 선택이 올바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나의 찬미」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표현이 가능한 태극기와 보혈의 능력을 표현한 붉은 천을 사용함으로써 회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현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동작 그 자체로 기도가 되는 동작어휘를 창출하고 표현하였다. 「나의 찬미」는 5분 6초라는 공연시간 동안 27개의 동작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는 보이기 위한 테크닉 위주의 동작 나열이 아닌 각 가사에 따라 꼭 필요한 메시지를 형상화 하여 표현한 것으로 오직 예배를 위한 동작으로 작품을 안무하고 구성한 것이다. 무용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예술이므로 무용수나 무용에 대한 외형화에 몰두할 수 있으나 동작의 표현이 곧 예배임을 간과하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본질적 동작으로 구성하여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의 이해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무되었다.

넷째, 기독교무용인이 곧 선교사이자 춤추는 예배자이다. 기독교무용인에게 기독교무용은 복음의 도구이며 자신은 곧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자 춤추는 예배자이다. 「나의 찬미」의 안무가인 박순자 교수는 기독교무용을 하는 무용가는 무용에 자신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가감없이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예배하는 “춤추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나의 찬미」로 예배가 드러지는 5분 6초라는 시간은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이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다.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별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곧 기독교무용 예배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다수의 기독교무용 단체, 기독교무용수, 기독교무용 작품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되는 작품의 폭은 개인의 회심에서 확장된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배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확장된 기독교무용 작품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의미를 찾고 이를 활용함으로 기독교무용이 더욱 발전되어 선교의 매체로 사용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바야시 신지, 김경자 옮김(1983).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Kobayash Shinji, Kim. K.J(1983). Dance aesthetics, Hyeundaenihagsa.]
- 최수진(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7.
 [Choi. S.J(2016).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church's perception about the christian dance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7]
- 박순자(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금광미디어.
 [Park. S.J(2004). 21st Century Christian Dance Approach. Geumkwang Media]
- 임혜영(2016). **기독교무용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8.
 [Lim, H.Y(2016). Measures for the Popularization of Christian Dance through the Work, 「The 70th Year Jubilee Dance」.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8.]
- 조선의(2016).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2-14.
 [Cho, S.H(2016). Leadership of Christian Dance Leader for missionary Works.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12-14.]
- 최세희(2014). **기독교 선교무용 수행체험**.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4.
 [Choi, S.H(2014).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issionary Work of Christian Dancers. Sookmyoung Sniversity, Seoul, Korea. 24.]
- 선교신문. 한국선교사 작년보다 46명 증가... 은퇴 선교사는 2년 연속 800명대(2020.1.14.)
<https://missionews.co.kr/>
- 크리스천 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0766>
- [https://en.wikipedia.org/wiki/My_Tribute_\(To_God_Be_the_Glory\)](https://en.wikipedia.org/wiki/My_Tribute_(To_God_Be_the_Glory))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무용 작품 「나의찬미」를 통한 선교적 의미 분석	발표자	김수진
		논찬자 (소속)	이선경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나의 찬미」 라는 기독교무용 작품을 통하여 기독교무용이 완성도와 작품성을 추구하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함으로 대중성을 겸비함과 동시에 신앙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오늘날의 예술에 대하여 자가당착에 빠져있으며, 위협적인 것이 되었고 엘리트 주의가 되어 실제적인 인간 삶에서 절연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술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미 예술에는 영적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그 자체가 예술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무용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무의 전 과정과 공연예배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13년째 선교의 현장에서 예배로 드리지는 「나의 찬미」 는 개인의 회복에서 나아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회복된 자들이 먼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증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우해 주실 것과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무용 작품은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이지만 「나의 찬미」 는 개인의 신앙에서 발전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찬미」 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발걸음 하나부터 손을 드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기도이며 간구이자 탄원입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무용수는 춤추는 예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며 기도함으로 무용예배를 이끌어 갑니다. 즉, 춤을 추는 사람이 곧 안무가이자 연출가이기도 한 기독교무용은 춤을 추는 자의 신앙 안에서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선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들과는 다르게 무용은 무형의 메시지를 신체로 통하여 형상화 하고 회중에게 전달하는데 이 전달과정에서 그저 신체를 통한 움직임이 아닌 감정과 사상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무용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생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기독교무용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특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안과 밖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용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인 무용수의 내면과 외면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직 기독교무용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 작품들에 대한 안무자가 자신의 작품에 투영된 예술관과 신앙관을 비교하며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선행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신앙은 주관성이 깊이 드러나고, 기독교무용은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를 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학문화하기 위해서는 주관성이 짙은 기독교무용을 어떻게 객관화 시킬 것이며,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풀어나 갈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예술일 뿐 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예술로 다가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